

하늘사랑

www.kma.go.kr Vol.395

2014. May 5

정책 클로즈업
장기예보가 달라집니다

맛있는 계절
구수한 정이 가득한 진천 5일장

열린마당
반갑지 않은 손님, 꽃가루 알레르기란?

날씨만화
날씨 제보 애플리케이션



기상청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www.kdec.or.kr

창조경제를 위한

민군기술협력 박람회

2014.5.29(목)~6.1(일)

일산 KINTEX



www.kdec.or.kr

| 문의 | 민군기술협력 박람회 TF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140-701) / Tel 02-748-7137~9

May 5



06



12



21

Contents

KMA Special Issue

- 정책 클로즈업 장기예보가 달라집니다 · 02
- 풍경이 있는 여행 '덕'스러운 밤도깨비 도쿄여행 · 04
청태산으로 숲 나들이 떠나요 · 06
- 맛있는 계절 구수한 정이 가득한 진천 5일장 · 08

KMA About

- 열린마당 일곱 청춘의 중국 탐방기 · 10
- 바닷속에서 인류의 미래를 만나다 · 12
- 반갑지 않은 손님, 꽃가루 알레르기란? · 14
- '하늘 공부' 재미납니다 · 16
- 기상과학문화가 확산됩니다 · 17
- 가슴속 깊이 전해지는 힐링타임 · 18
- 아따, 꽃보다 광주랑께요~ · 20
- 미국 허리케인 연구의 중심으로 떠나다 · 22
- 잊을 수 없는 영국에서의 2년 · 24
- 2030 솔로탈출 11번째 부케의 전설 · 26

KMA Hope

- 직장협의회 소식 제주 지역 기상청 공무원 직장협의회 출범 · 28
- 날씨만화 날씨 제보 애플리케이션 · 29
- 포토뉴스 · 30
- 퀴즈 · 32



기상청에서 발행한 「하늘사랑」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거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il.or.kr

2014년 5월호(통권 395호)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전화 (02)2181-0366 팩스 (02)836-5472
E-mail kimhy80@korea.kr 발행일자 2014년 5월 10일 발행처 기상청 발행인 고유화
발간등록번호 11-1360000-000079-06 편집장 정관영 편집기획 대변인실
디자인/인쇄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031)906-7735

장기예보가 달라집니다

기후예측과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이상기후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관기관 및 민간 부문에서 장기예보에 대한 정확도 및 실용성 향상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2013년 겨울철 예보'에서 작년 12월은 평년보다 춥고 올해 1월과 2월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12월은 평년과 비슷하게, 1월과 2월의 기온은 평년보다 각각 1.5℃와 1.4℃ 높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장기 예보 정확도가 언론의 혹평을 받기도 했다.

장기예보라는 용어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일반 날씨예보와의 차이를 쉽게 이해하지 못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도 한다.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현상에 대하여 초단기, 단기, 중기로 나누어 시간 혹은 하루의 의미로 예보하는 것과 달리, 장기예보는 앞으로 열흘, 한 달간의 평균 상태를 과거(평년)와 비교하여 기온과 강수량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경향성을 예보한다. 그러니 날씨가 아닌 기후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현재 대기상태 정보를 기초로 하여 10일 이상의 미래 날씨를 정확히 예측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보다 길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기후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상호작용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대기뿐 아니라 지면, 해양, 빙하, 생태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미래 날씨의 평균 상태에 대한 제한적인 예측이 가능하며, 이 정보에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장기예보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오는 6월부터, 미래 날씨의 평균 상태를 평년 대비 높음(많음), 비슷, 낮음(적음)의 세 가지로 예보하는 기존의 장기예보 방법에서 높음(많음), 비슷, 낮음(적음)의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각각 정량적인 확률(%)로 발표하는 확률장기예보로 변경할 예정이다. 확률장기예보가 시행되면, 1개월 전망이 10일에서 7일 예보 단위로 세분화되며, 예보 방식이 3분위 단정예보에서 3분위 확률예보로 변경된다.

[1개월 예보의 세분화]

순	평균기온	강수량	주	요소	평균기온			강수량				
					평년(°C)	확률(%)			평년(mm)	확률(%)		
						낮음	비슷	높음		적음	비슷	많음
4월 상순	평년(9~12°C)보다 높겠음	평년(13~50mm)보다 많겠음	1주	13.8	50	30	20	17.1	50	30	20	
4월 중순	평년(11~14°C)과 비슷하겠음	평년(19~59mm)보다 적겠음	2주	15.4	30	40	30	22.3	20	20	60	
4월 하순	평년(13~16°C)보다 높겠음	평년(19~53mm)과 비슷하겠음	3주	16.4	10	40	50	29.3	30	40	30	
			4주	16.6	10	40	50	28.1	30	40	30	

[예보 방식 변경]



기상청은 확률장기예보를 시행하기 위해, 영국기상청과 협력하여 선진 기후예측모델을 확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구축된 고해상도 계절예측시스템을 6월부터 현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양상블 예측자료의 멤버수를 기존 20개에서 84개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장기예보의 정확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확률장기예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구체적인 예로 여름의 3개월 평균 기온 확률예보를 이용하여 농작물의 품종을 선택하는 과정을 보자.

» 여름 기온에 따른 품종별 수확량(면적당 kg)

품종	기온		
	낮다	비슷	높다
A	40	100	110
B	50	100	100
C	60	80	100

» 여름 기온 확률예보

기온 확률 예보(%)	
낮음	50
비슷	30
높음	20

고온에 강한 품종 A와 저온에 강한 품종 C, 그리고 그 중간인 B가 선택 대상에 올라 있고, 3개 품종의 수확량과 여름 기온과의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고 가정한다. 이 표에서 보면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품종 A를, 기온이 평년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품종 C를 심는 것이 유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여름철 기온의 확률이 '낮음 : 50%, 평년과 비슷 : 30%, 높음 : 20%' 라고 예보되면, 각 품종별 예상 수확량을 확률에 맞춰 계산한 후 품종을 선택할 수 있다.

먼저, 각 품종별 예상 수확량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품종 A : $40 \times 0.50 + 100 \times 0.30 + 110 \times 0.20 = 72(\text{kg/a})$
 품종 B : $50 \times 0.50 + 100 \times 0.30 + 100 \times 0.20 = 75(\text{kg/a})$
 품종 C : $60 \times 0.50 + 80 \times 0.30 + 100 \times 0.20 = 74(\text{kg/a})$

확률을 적용한 계산 결과에 따라 그 수확량을 비교해 보면, 품종 B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함을 알 수 있다. 막연한 단정예보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인 것이다.

이처럼 확률장기예보는 단정예보에 비해 확률을 통한 정보의 양이 많아서, 정책결정자가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정책 수립 등의 의사 결정에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산업·경제 분야의 장·단기 계획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국민 편익 증대를 위하여 확률장기예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풍경이 있는 여행



서울의 야경

금요일 밤 비행기로 서울의 야경을 만끽하며 날아와, 숙소에서 스치듯 잠만 자고 맞이한 토요일 아침. 여럿이 함께하는 여행이다 보니, 혼자만의 시간은 이날 오전 한국에서 출발하는 후발대와의 조우 전까지였다. 그래서 자유 시간을 만끽하고자 바빠 첫 번째 목적지인 포켓몬센터로 향했다.

‘덕’스러운 밤도깨비 도쿄 여행



정연화 /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운영과

‘오타쿠’라는 단어가 있다. 세간에서는 편견에 치이는 말이지만, 사실 단어 자체의 의미는 ‘특정 취미나 사물에 광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본래 일본에서 발생한 단어인데, 한국에서는 이 단어를 줄여서 ‘오덕’ 혹은 ‘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같은 취미 아래 모인 이 ‘덕’들이 주말을 틈타 ‘덕’의 발생지인 일본의 도쿄에 다녀왔다.

포켓몬센터란 일본의 인기 게임이자 애니메이션인 〈포켓몬스터〉에 등장하는 시설의 명칭으로, 포켓몬스터와 관련된 각종 상품을 파는 가게이다. 한국에선 단순히 애들 만화로만 여기기 마련이지만, 일본에서는 부모부터가 ‘이건 어디에 나오는 캐릭터고 이걸 누가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라고 말하며 아이들과 함께 즐기는 모습이어서 신선했다.

이어 두 번째로 간 곳은 **나카노**. 도쿄 관광지 중에서는 덜 알려진 지명이지만, ‘덕’들 사이에서는 ‘서브 문화의 성지’로 꽤나 유명한 곳이다. 만화책, 게임기, DVD, 피규어처럼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물건뿐 아니라 밀리터리와 스포츠 용품 등 각종 아이템까지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대부분 중고). 운이 좋으면 발매된 지 오래돼서 지금은 구하기 힘든 물건을 얻을 수도 있는, 알수록 블랙홀같이 빠져나오기 힘든 매력을 지닌 쇼핑 거리이다.





나카노 브로드웨이의 한 가게



J-World 카페테리아의 메뉴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후발대원들과 합류하여 찾아간 곳은 도쿄의 양대 오타쿠 성지 중 한 곳인 **이케부쿠로**. 큰 백화점과 쇼핑센터가 있는 변화한 거리이자, 갖가지 애니메이션 관련 상점들이 즐비한 마법의 동네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곳에는 작년에 새로 오픈한 공간이 있는데, 바로 일본의 대표 만화잡지인 ‘주간 소년점프(원피스, 드래곤볼, 슬램덩크 등을 연재)’에 게재된 작품들을 배경으로 한 **J-World** 라는 테마파크이다. 놀이기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명 작품들의 배경 속에 직접 들어가서 그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다. 또한 각 작품에 실제로 등장했거나, 캐릭터들의 이미지를 본떠 만든 음식을 파는 카페테리아도 있어서, 잠시 만화 속 세계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전해준다. J-World에서 실컷 즐기고 애니메이션 상점들을 정복하고 나니 금세 하루가 저물었다.

일본에서의 두 번째 날인 일요일엔 다카다노바바라는 역에 위치한 **백곰카페**를 제일 먼저 들렀다. 이곳은 2012년에 방영된 인기 애니메이션인 <백곰카페>의 배경을 재현한 카페인데, 가게 내부와 직원 복장



백곰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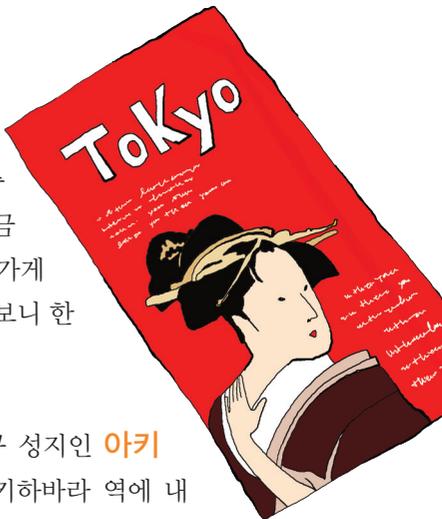


건담카페

은 물론, 메뉴마저도 작품을 충실히 반영한 모습이였다. 지금은 완결된 애니메이션이지만, 가게 안에서 틀어주는 영상을 보다 보니 한 동안 추억에 잠기게 되었다.

이어서 도쿄의 또 다른 오타쿠 성지인 **아키하바라**로 발길을 옮겼다. 아키하바라 역에 내려 거리로 나온 우리를 맞이한 건 6차선이나 되는 보행자 도로였다. 분명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웬지 저기서 차가 달려올 것만 같은 낯설음이 느껴졌다. 이런저런 상점과 길거리 벵룩시장을 둘러보다가, 또다시 우리가 안착한 곳은 일본의 대표 애니메이션인 <기동전사 건담>을 테마로 한 **건담카페**. 일요일 낮이어선지 무려 한 시간을 기다려서야 들어갈 수 있었다. 좀 유치한 느낌은 들었지만, 건담 모양을 본뜬 메뉴를 주문하고 잠시 앉아 피로를 풀었다. 이후엔 다시 거리로 나가, 출국을 앞둔 여행객의 아쉬운 마음을 달래줄 마무리 쇼핑에 매진했다.

굵직한 일정이라고는 카페 두 군데에 들른 것밖에 없음에도, 체력을 탕진한 우리는 당초 예정이었던 ‘밤샘 가라오케(노래방)’를 포기하고 숙소로 돌아와, 캔맥주를 한 잔씩 기울이며 마지막 밤의 아쉬움을 달랬다. 선발대인 나와 나머지 한 명은 다음날인 월요일의 새벽 비행기에 늦지 않기 위해 막차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다. 텅 빈 공항에서 생애 첫 노숙을 감행했는데, 철저한 보안과 냉난방 시설 완비, 또 쾌적한 실내 공간과 안락한 벤치, 그리고 24시간 운영하는 음식점들 등 그야말로 노숙계에서는 5성급 호텔이라 할 만했다. 이런 색다른 밤을 보내곤,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귀국 비행기에 올랐다. 주말과 월요일 아침까지 헌납해야 하는 밤도깨비 여행은 돌아오자마자 쉴 시간도 없이 한 주를 보내야 한다는 부담이 큰 일정이었다. 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외국에 갔다 온다는 것은 국내여행을 다녀오는 것과는 또 다른 즐거움이었다. 거기에 좋아하는 것을 실컷 보고 직접 살 수도 있으니, 주말의 휴식 정도는 바칠 만하지 않을까.





청태산으로 숲 나들이 떠나요



신윤숙 / 지진정책과

“ 이번 주말엔 뭐하지? ”

남편은 주중에 항상 같은 고민을 한다. 여유로운 주말에는 밖으로 나가고 싶어서다. 지방에서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가족은 맑은 공기를 찾아서 도심 밖으로 나가는 것을 좋아한다. 대부분 숲으로 떠나는데, 이 지면을 통해 저렴하고 실속 있는 휴양림의 매력을 소개하고자 한다.

국립자연휴양림(www.huyang.go.kr)은 서울 근교부터 제주까지 전국에 약 40여 개가 있다. 휴양림은 여름엔 계곡물을 이용한 수영장을, 겨울에는 눈썰매장을 운영하기도 한다. 또 4인실부터 60인실까지 다양한 숙소가 있어 단체모임이나 두세 가족이 함께 보내기에도 불편함이 없다. 숙소의 침구 또한 청결해서 좋고, 비용은 펜션이나 호텔 리조트보다 저렴하다.

캠핑이라면 집에 돌아와서 텐트며 식탁이며 정리할 것이 많지만, 휴양림에 다녀오면 수건과 옷가지만 빨래통에 넣으면 된다. 나름 준비물이 적은 편안한 여행인 것이다. 단점은 이용자가 많아 휴가철이나 주말엔 예약이 어렵다는 것이다. 만약 예약을 못했다면, 국립휴양림과 유사한 시설과 규모를 갖춘 도립휴양림을 이용하면 된다.

최근에 다녀온 곳은 청태산자연휴양림으로 영동고속도로를 따라 가다 중간에 한 번쯤 쉬어갈 수 있는 횡성과 평창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숙소는 통나무집이었는데 방 2개와 다락방, 거실로 나뉘져 있었다. 두 가족이 쓰기에도 충분해서 큰 아이 친구 가족과 함께 떠난 여행이었다. 편한 친구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시원한 풍광을 보며 조용히 지내다 올 생각에 떠나기 전부터 무척 설렘다.





이 휴양림에는 가볍게 걸을 수 있는 산책로가 여럿 있는데, 거동이 불편하거나 유모차를 가지고 있어도 편히 다닐 수 있는 1km 정도 되는 나무로 만든 길도 마련돼 있다. 돌부리 같은 것이 없어서 주위의 봄기운과 잣나무 숲의 피톤치드를 더욱 만끽하며 숲 속 산책을 즐길 수 있다. 또 짝을 지어 다니는 다람쥐도 볼 수 있는데, 아이들이 다람쥐의 움직임에 따라 눈을 동그랗게 뜨며 신기해했다.

각 지방의 휴양림 근처에는 유명지가 많은데, 청태산자연휴양림은 차로 1시간 반경 안에 대관령 양떼목장, 허브마을, 봉평 메밀꽃, 횡성한우, 안흥찐빵, 풍수원 성당 등 많은 즐길 거리가 있다. 기회가 될 때마다 한 곳씩 둘러 보니 이제는 모두 추억 속 장소가 되었다. 또한 휴양림이 좋은 이유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숲해설인데, 방문객을 대상으로 숲해설사가 소중한 나무이야기를 전해준다. 또한 이곳에는 목공체험실이 있어서 작은 나무 조각으로 꽃반지나 화관도 만들 수 있다.

이번 숙소에서는 특히 다락방이 있어 좋았는데, 서울 아파트와 달리 맘껏 뛰어놀 수 있는 편이었다. 층간소음 때문에 “뛰지 마! 큰소리 내면 안 돼!”로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는데, 여기서는 어떤 제재도 하지 않으니 그야말로 ‘아이들의 천국’이었다.



아이들이 다락방에서 신나게 뛰어놀 때, 엄마들은 거실에서 그동안 미룬 수다를 나누고, 아빠들은 풍성한 저녁 준비에 돌입한다.

우리 가족은 입이 짧아서 넷이 3인분을 먹어도 항상 남는 편이다. 하지만 아빠가 준비한 야외 음식은 넘죽넘죽 잘도 받아먹는다. 처음엔 장작을 태우며 남은 숯에 돼지고기 목살을 구운 것으로도 좋았다. 그런데 점점 요리의 방식과 재료의 다양화를 거치면서, 이제는 제법 화려한 요리들이 가득 식탁에 차려졌다. 통삼겹살, 돼지갈비립, 통닭, 왕봉, 가리비 요리 등으로 진화한 것이다.

바비큐는 출발 하루 전에 여러 가지 천연 허브가루를 섞어 만든 수제 조미료를 고기에 재워져 가져온다. 숯에 불붙이고 바비큐 그릴을 세팅하고 온도를 체크하면, 점점 맛있는 바비큐로 완성돼 간다. 가리비와 키조개를 손질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자치즈를 듬뿍 올려서 버터구이로 내주면, 아이들 입에 딱 맞는 맞춤형 음식이 된다. 이처럼 집 밖으로 나오면 아빠는 아이들의 입을 즐겁게 해주는 최고의 요리사로 변신한다.

신록의 계절이다. 이번 주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싱그러운 자연을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특히 마음 맞는 동료도 함께라면, 한결 더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수한 정이 가득한 진천 5일장



정수현 /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운영과



어릴 적 엄마 손을 잡고 한 손에 어묵 꼬치를 들고 다니며 이것저것 구경하던 시장은 내겐 파라다이스 같은 곳이었다. 이런 추억 때문일까? 진천 5일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도 설레고 기대로 가득했다.

진천은 예로부터 토지가 비옥하여 산물이 풍부하고 인심이 후덕해 살기 좋은 고장이라는 의미로 ‘생거진천’으로 불리는 만큼 5일장에는 각종 농수산물과 생활용품, 먹을 것으로 가득했다. 진천 5일장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현대식 재래시장으로 전국 5일장 중 네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5일과 10일마다 백곡천 둔치를 따라 진천 시가지까지 장이 선다.

처음 우리를 맞이한 것은, 한창 농사를 준비하는 계절인 만큼 요즘 장의 핫 아이템인 모종이었다. 상추, 고추, 오이, 파프리카 등등 익숙한 것부터 처음 보는 채소까지 각종 모종들이 즐비했다. 그



옆은 누가 봄 아니랄까봐 색색의 꽃과 여러 종류의 화분들이 가득 있었다. 조금 더 걸어가니 할머니들이 직접 캐서 파는 봄나물 바구니들도 많이 보였다. 정말 이보다 계절의 변화를 빨리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어디에서 보다 봄이 왔음을 직접 느끼고 볼 수 있는 곳이 재래시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줄 맞춰 있는 알록달록 색색깔의 과일, 반질반질한 제철 채소, 바다에서 멀리 내륙까지 오느라 고생했을 생선과 해산물, 짚으로 만든 신과 모자,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를 골동품, 열심히 쓰이길 기다리는 농기구들, 할머니들의 빠질 수 없는 패션아이템인 몸빼바지 등등 그야말로 없는 것이 없는 만물상은 5일장이었다.

시장 구경에서 빠질 수 없는 즐거움은 바로 먹거리! 즉석에서 튀긴 어묵, 따끈따끈한 계란빵, 직접 만든 옥수수술빵, 고소하고 담백한 메밀전병과 수수부꾸미까지... 어느샌가 양손에 먹을거리 쇼핑으로 검은 봉지가 한가득 담겼다. 직접 쓴 도토리묵과 튀김, 만두랑 찜빵까지 더 사고 싶었지만 너무 과소비하는 거 같아 다음 기회를 위해 참기로 했다. ^-^; 이것저것 군것질을 하며 구경했더니 저녁 시간이 다 되어도 배가 고프지 않았다. 그래도 이대로 가긴 아쉬워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는 국밥집에 들렀다. 옆 테이블에는 장날이라고 구경 나오신 할아버지 두 분이 국밥에 막걸리 한잔 하며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신다. 만 원짜리 한 장으로 막걸리와 국밥까지 배불리 먹으며 행복해 하시는 할아버지들을 보니, 웬지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순대, 내장, 머리 고기, 우거지가 푸짐하게 들어있는 4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을 서둘러 푹딱 비우곤 나머지 시장 탐방을 위해 다시 길을 나섰다.

시장이 끝나갈 즈음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것이 또 하나 있었는데, 바로 뽑기였다. 초등학교 때 학교 앞에서 많이 먹던 달고나(내가 살던 지역에선 ‘쪽자’라고 불렀다)를 보니,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그 리어카 앞에서 솜사탕, 말 타는 인형, 말하는 새 인형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참 동안 구경했다. 이때, 열심히 사진을 찍는 우리를 신기하게 보던 한 할머니가 말을 걸어 오셨다.

“아가씨, 뭘 그리 찍어?”

“봄나물이 무척 예뻐서요.”

“아유, 사진만 찍지 말고 하나 사~”

할머니가 직접 캐셨다는 나물 한 봉지를 샀더니 텃이라는 이름의 정 한 움큼을 더 쥐어 넣어 주셨다. 천 원씩 깎는 재미가 있는 곳, 한 봉지를 사더라도 한두 개씩 더 얹어주는 정이 있는 곳. 이런 이유로 난 깨끗하게 정돈된 마트보다 어수선하고 투박하지만 정겨운 시장이 더 좋다.



날씨도 따뜻한 요즘, 활기차고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나는 주변의 재래시장을 한번 둘러보는 것을 추천한다.



일곱 청년의 중국 탐방기



김선형 / 경북대
천문대기과학과

매년 3월 23일은 '세계 기상の日'이다. 기상청은 올해 주제인 '기상과 기후, 청소년의 참여로부터!'에 부응하기 위해, 기상학 전공 개설 대학의 학생들을 모아 중국기상청과 경북대학교 탐방의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기상은 국제적인 연구가 중요한 분야다 보니, 이번 해외 탐방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기회였다.

미래 기상전문가들이 될 전국의 7개 대학에서 선발된 7명의 학생들. 우리는 대기과학이라는 같은 길을 걷고 있어선지, 기상청에서 열렸던 한 번의 홍보 행사를 통해 이미 친해져 있었다. 그리고 그토록 고대하던 중국 탐방의 날. 우린 공항에 모이기 직전까지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들뜬 마음을 나누었다. 과연 중국은 어떤 곳일까?

드디어 도착한 중국은 짙은 미세먼지가 하늘을 가려서 부영고, 공기 탓인지 넓게 트인 공간에서도 기분을 답답하게 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천안문 광장과 자금성이었다. 중국 북경 시내 한가운데 위치한 천안문 광장은 한마디로 자금성의 앞마당인데, 무려 44만 평! 다들 얼빠진 얼굴로

광장을 지나서, 바로 이어지는 자금성 문을 하나들 통과했다. 뿌연 공기가 계속 시야를 흐렸지만, 한낮의 태양빛을 받으며 금색으로 빛나는 지붕들의 아름다움까지는 흐리지 못했다.

광장을 실컷 걸었더니 이내 출출해졌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부산의 먹자골목을 연상시키는 북경의 왕부정 거리. 좁은 골목길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북적였다. 다들 배고픈 마음에 지갑을 비울 준비를 하던 찰나, 꼬치에 꽂힌 전갈들의 소리 없는 발길질과 노릇노릇 익어있는 참새구이가 우리의 지갑을 달게 했다. 그리고 쓰레기통을 뒤져서 버려진 음식을 먹는 중국인들도 있어, 이 나라의 빈부격차를 제대로 실감할 수 있었다.



천안문 광장





중국기상청



“여기가 기상청이야, 기상촌(村)이야?”

북경의 기상청에는 직원들을 위한 아파트가 있을 만큼 근무 환경을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보였다. 또한 중국은 확실히 컸다. 예보만을 담당하는 건물, 중국 각지의 기상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건물, 위성 관측을 담당하는 건물 등 각각의 건물마다 역할을 전문화 시켜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이 넓은 중국 대륙의 기상예보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싶다. 그 덕분에 우리는 견학하는 데에만 3시간이 걸렸다. 각 담당자가 영어로 건물의 역할을 소개하였고, 우리도 질문을 하며 기상에 관한 관심을 표출했다. 과연 이렇게 크고 멋진 곳에서 일하게 될 사람들은 누구일까?

중국 최고의 대학교인 북경대학교. 중국 인구 13억 5,568만 명 중에서 최고로 꼽히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이다. 우리는 한 회의실에서 대기과학과의 대학원생 3명과 학부생 2명, 그리고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 대학원생은 물론 학부생들의 영어 실력 또한 유창했고 대화 수준도 아주 높았다. 한 가지 부러웠던 점은, 중국은 현재 대부분의 분야에서 전문 인력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만 한다면 일자리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처럼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문득 열심히 공부해서 멋진 기상전문가가 되어 있을 그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중국에 가 보니, 난 아직도 우물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동안은 한국의 대학 문화에 흠뻑 빠져서



북경대학교

긴장이 풀린 채로 공부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방문을 통해 알게 된 북경대학교 학생들의 열정이 나를 우물 밖으로 꺼내 주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7명 모두에게 이번 중국 탐방이 ‘공부의 길’을 위한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싶다.

“계속 이 길을 걸어다 보면, 언젠가 다시 만나겠지?”

우리는 모두 같은 분야를 공부하고 있고, 같은 꿈을 그리며, 또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게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다 보니, 우린 더욱더 가까워졌다. 중국에 머무는 2박 3일 동안, 하루 일정을 마친 후 다 같이 모여 얘기하던 순간이 가장 행복했다. 다신 없을 순간이기에 아쉬움이 짙게 남으면서.



미래 기상전문가(일곱 청춘)

바닷속에서 인류의 미래를 만나다



문희정 / 완도기상대



국제해조류박람회 정문

완도산 수산물이라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전복일 것이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좋은 것이 바로 값싸고 건강에도 좋은 해조류이다. 전국 생산량의 45%를 차지하는 완도 해조류의 종류는 우리가 즐겨 먹는 김, 미역, 다시마 등을 포함해 500여 종이며, 이 중 50여 종이 식품으로 이용되고 있다. 미래 인류의 대체 식량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해조류를 좀 더 알기 위해 '국제해조류박람회(4월 11일~5월 11일)'를 찾아가 보았다.



‘바다의 채소’ 해조류

생태환경관에 들어서면, 마치 잠수함을 타고 바닷속으로 들어간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실제 잠수함은 아니지만, 잠망경을 통해서 바다 밑에 서식하는 해조류를 만나볼 수 있는 곳이다. 해조류 사이로 물고기가 지나가는 모습이 실제 바다에 들어가 있는 기분을 들게 한다. 바다 생물들을 직접 만져보고, 이름도 배울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몸에 좋은 음식 이야기

건강식품관에서는 역사 속의 다양한 해조류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다. 선조들이 출산 후 미역국을 먹는 관습은 지금까지도 전해지는데, 고서 「초학기」에는 고려 사람은 새끼를 낳은 고래가 미역을 먹어 산후의 상처를 낫게 하는 걸 보고 산모에게 미역국을 먹였다고 한다. 「동의보감」에서는 미역은 열이 나면서 기가 뭉친 것을 치료하고 배뇨 활동을 원활히 해준다고 기록돼 있다.



잠수함을 타고 떠나는 여행



조물조물 해조류 느껴보기



선조들의 해조류 밥상



미역 먹는 고래이야기

전시장 곳곳엔 먹음직스런 해조류 요리가 전시돼 있는데, 김은 해조류 중에서도 가장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고 무기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다시마는 요오드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다이어트 식품으로 손꼽힌다. 또한, 건강을 우선으로 챙기는 일본인들이 즐겨먹는 툇에는 철분이 우유의 40배나 들어 있다고 한다. 시식코너에서는 툇으로 만든 젤리와 구운 김 등의 해조류를 맛볼 수 있는데, 특히 임신부들은 미역도 선물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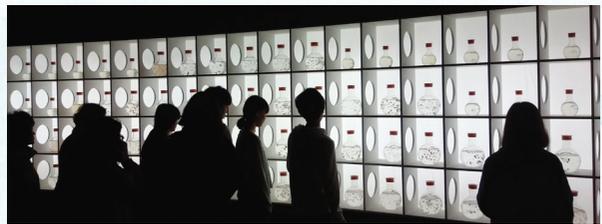
‘바다의 보물창고’ 해조류

해조류는 단순히 음식으로만 사용 가능할까? 미래 해조류의 도시인 산업자원관에서는 해조류의 무한한 가능성을 볼 수 있다. 해조류를 이용해 자동차 연료를 생산하고, 민감한 피부를 위해 해조류를 가공한 섬유로 옷을 만든다. 또한 건강을 지켜주는 해조류 의약품과 피부 탄력에 도움을 주는 해조류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해조류 종자은행에서는 90여 개의 비커 속에 실제 김 종자를 배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최근 해수 온도 상승 등으로 해조류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해조류 종자를 보관하고 실용적인 품종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국내 최초로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다시마 ‘전관 1호’와 김 신품종 ‘전해연 1호’를 개발했다고 한다.

다양한 즐길 거리

볼거리 못지않게 프로그램도 알차게 짜여있는데, 해조류로 만든 녹지 않는 아이스크림과 라면을 만들어 먹는 체험이 선착순으로 진행됐다. 뿐만 아니라 김, 미역 등 다양한 해조류를 양식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 해조류 양식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다. 바다에서는 친환경 수상자전거를 즐길 수 있고, 야외 공연장에서는 다양한 이벤트와 공연이 펼쳐졌다. 정말 무궁무진한 해조류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해조류 종자은행



해조류 주유소

바로알기 Q&A

Q1. 해조류는 갑상선에 좋지 않다? X

해조류의 식이섬유 중 요오드는 천연 원소로 소량이지만 인체에 꼭 필요하다. 요오드 결핍은 오히려 갑상선 호르몬 합성을 저해해서, 몸이 붓고 전신의 반응이 느려지며 활력이 줄어드는 증상을 가져온다. 다만 과다 섭취를 할 경우,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이나 분비가 억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Q2. 미역을 먹으면 피가 맑아진다? O

미역은 피가 덩어리지지 않게 하고, 지혈 작용을 돕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이 성분들이 독소를 몸 밖으로 몰아내 피를 맑게 해준다.

Q3. 해조류는 짜기 때문에 나트륨 과다 섭취를 유발할 수 있다? X

염분이 있어 짠맛을 내지만, 해조류의 ‘알긴산’ 성분이 몸속 나트륨을 배출해주기 때문에 과다 섭취를 유발하지는 않는다. 끈끈한 성질이 있는 섬유질인 ‘알긴산’은 농약이나 발암 물질, 콜레스테롤 등을 몸 밖으로 끌고 나가는 역할을 한다. 다만 조리할 때, 소금기를 털어내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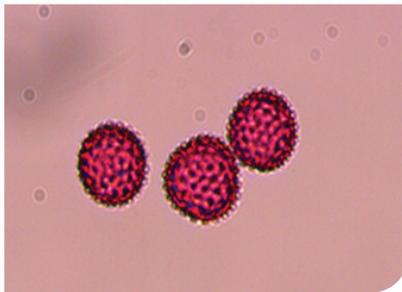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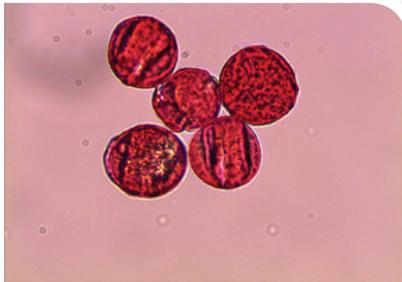
반갑지 않은 손님,

꽃가루 알레르기란?



김미진 / 국립기상연구소
응용기상연구과

제주도에는 많은 전설이 있다. 그중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설문대할망’이라 불리는 제주토착신에 관한 전설의 일부를 보면, 설문대할망은 한라산을 베개 삼아 누워 물장구를 치며 놀았다. 이때 엉덩이를 둔 자리가 지금의 고근산오름이고, 다리를 걸친 자리가 관탈섬이다.



▶ (위)참나무와 참나무 꽃가루 (아래)돼지풀과 돼지풀 꽃가루
출처: 한국의 알레르기 식물(2001,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전설에 등장하는 배경을 둘러로 국립기상연구소가 위치한다. 연구소 주변에는 꽃들이 봄을 알리려 하듯 한창 개화하고 있다. 연구소 아래에는 호근마을이라는 작은 부락이 있고, 길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아담한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다. 근처 중산간도로와 만나는 길을 가다 보면 고근산 산책로가 나온다. 유채꽃과 철쭉이 있는 길을 걷다 보면, 높이 솟아있는 삼나무림도 지날 수 있다.

봄이 오면 이러한 꽃과 관련된 축제들이 많이 열린다. 수선화축제, 매화축제, 튜립축제, 왕벚꽃축제, 유채꽃축제, 청보리축제 등등. 축제에 가면 만발한 꽃의 형상처럼 모두가 활짝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사진에 담는다.

그렇다면, 이렇게 봄의 소식을 알려주는 꽃과 나무들은 모두에게 반가운 손님일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알레르기성 비염의 유병률은 1998년에는 1.2%, 2012년에는 16.8%로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다. 알레르기성 비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알레르겐이 바로 이 꽃가루이다.

그럼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꽃가루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꽃가루는 수십~수백 마이크로미터(μm) 정도의 아주 미세한 입자여서 눈에 보이지 않고, 겨울철을 제외한 계절에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3월부터 5월에는 참나무, 오리나무, 자작나무 등 수목류, 5월부터 9월에는 잔디, 그리고 8월부터 10월에는 돼지풀, 환삼덩굴, 쑥 등 잡초류의 꽃가루 농도가 높다. 특히 가을철에 잡초류에서 발생하는 꽃가루는 매우 강한 알레르기 항원성을 나타낸다. 수목류에 비해 그 농도가 적어 소홀히 다루어질 수 있지만, 알레르기에 민감한 환자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식물은 수정 방법에 따라 충매화와 풍매화로 나누는데, 충매화는 향기나 꽃으로 곤충을 유혹하여 꽃가루를 전파시키므로 생산량이 적고 크며 무겁다. 공기 중에 잘 떠다니지 않아서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하는 경우가 적다. 반면 풍매화는 바람에 의해 꽃가루가 전파되며, 생산량이 많고 가벼워서 공기 중에 잘 날아다닐 수 있다. 그래서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과 연관성이 많아,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는 꽃가루 대부분이 풍매화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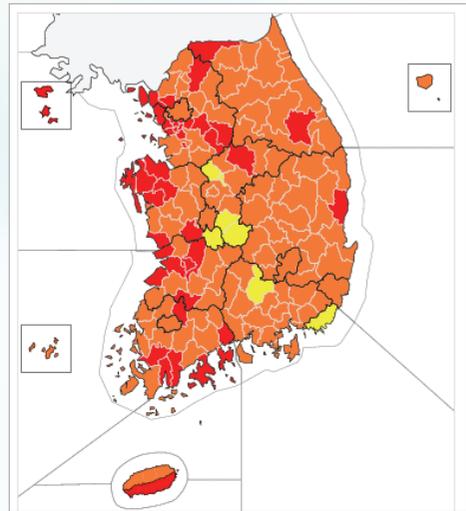
꽃가루의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알레르기성 비염, 결막염, 기관지 천식이 있으며 콧물, 재채기, 눈의 충혈을 동반하기도 한다. 식별하기는 어렵고,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어 더 무서운 꽃가루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꽃가루 알레르기 예방법

- 1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조깅 등의 야외 활동을 삼간다.
- 2 외출할 땐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한다.
- 3 외출 후 실내에 들어갈 경우 옷을 털거나 겉옷을 갈아입는다.
- 4 외출 후 집에 들어왔을 땐 바로 손을 씻는다.
- 5 운전할 때는 창문을 올리고 에어컨 등으로 환기한다.
- 6 빨래를 옥외에 널지 않는다.
- 7 실내 청소는 진공청소기를 사용한 후 물걸레질을 한다.
- 8 목이 따갑거나 가려울 경우엔 물로 헹구거나 섭취한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예방법이 있는데,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들은 외출 전에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에서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 예보를 확인하면 도움 받을 수 있다. 특히 강수 후 대기 중의 꽃가루 입자가 땅에 떨어졌다가 강수가 증발하면서 대류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이와 함께 꽃가루의 부양력도 함께 높아져서 갑자기 꽃가루의 농도가 증가한다고 하니 참고해서 안전하고 기분 좋은 봄철 나들이를 즐기길 바란다.

▶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참나무) 2014. 04. 30 예보



단계	설명 및 주의사항
매우 높음	거의 모든 알레르기 환자에게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물러야 함
높음	대개의 알레르기 환자에게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함
보통	약한 알레르기 환자에게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야외 활동 시 주의 요함
낮음	알레르기가 심한 환자에게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평소 건강관리에 유의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기상청 누리집→날씨→생활과 산업→생활기상정보→보건기상지수)

‘하늘 공부’ 재미납니다



김동량 / 안동시 노인대학장



해마다 3월이 되면 안동시에 있는 노인대학은 사람들로 붐빈다. 65세부터 등록이 가능하지만, 넘쳐나는 지원자들을 모두 입학시킬 수 없기에 안타깝기만 하다.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하지만, 배움을 향한 열정과 마음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안동시 노인대학은 1973년에 설립되었다. 짧은 시절 직장과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제2의 인생을 보람 있고 건강하게 보내기 원하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배움의 기회와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매년 3월에 시작하여 18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화요일에는 컴퓨터 교실과 노래 교실, 댄스스포츠와 요가, 게이트볼 강좌 등의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금요일에는 가정 법률과 역사에 관한 교양 강좌와 건강 수업, 기관 탐방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013년까지 총 2,49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현재 33기까지 되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도움이 되고자 하는 노력은 모든 학교의 고민이다. 우리 노인대학도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지난 4월 4일 안동기상대를 방문했다. 날씨를 관측하는 장비도 보고 일기예보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상세히 알 수 있었다. 친절하게 맞아준 박중서 기상대장과 머리에 쓱쓱 들어오게 설명해 준 안현진 주무관 덕분에 날씨가 만들어지는 것도 배우고 우리 지역에 나타나는 기후변화도 알게 되었다. 언제 왔다 갔는지 계절의 구분이 없어지는 봄과 갈수록 더워지는 여름이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이 걱정되기도 했다.

교육을 받고 보니, 기상청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감시하고 더 좋은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겸손히 배우려 하고 지나간 자리를 돌아보며 후손들을 생각하는 노인대학 학생들 처럼, 모두가 훗날을 더 생각하고 노력한다면 기후변화도 잘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날씨예보와 우리의 안전을 위해 날마다 애쓰는 안동기상대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기상과학문화가 확산됩니다



박종서 / 안동기상대장

안동으로 부임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간다. 이전과는 사뭇 다른 일이라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그야말로 지역주민들과 같이 체험하고, 피부로 직접 느끼는 기상서비스 현장이 바로 기상대구나라는 것을 매일 실감하고 있다.

안동은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말하여지는데, 이에 걸맞게 전국에서 가장 많은 40여 개의 서원을 보유하고 있다. 서원에서 학문을 닦던 선비정신이 이어져 지금까지 85개의 평생교육기관에서 매년 5만여 명이 학습에 참여하고 있다. 안동 인구가 약 16만 명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인구의 30% 정도가 평생교육을 받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2003년에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다고 하니, 배움에 대한 열정이 나이와 계층을 초월한 도시임이 틀림없어 보인다.

그래선지 내가 맞이한 첫 번째 고객은 노인대학 어르신들이었다. 미리 인사차 오신 김동량 학장님은 참으로 인상적인 분이셨다. 벌써 몇 년째 안동기상대를 방문하는데도, 마치 처음 방문하는 것처럼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대해 우리가 더 힘이 나게 해주셨다.

노인대학 방문 당일엔 어르신들을 모시고 관측 장소와 홍보실 견학, 그리고 기상업무 교육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우리를 힘이 나게 하는 사람은 학장님만이 아니었다. 학생인 어르신들 또한 얼마나 질서 정연하시던지! 약 1시간가량 진행한 수업도 어찌나 집중하며 들으시던지 감탄스러울 뿐이었다. 또 우리 직원들 손을 꼭 잡으며 무척이나 고마워하셔서, 그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전달돼 에너지가 모두 충전되는 기분이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1955년 ~1963년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시기도 점차 다가오고 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세대이기에 여가 생활과 밀접한 기상정보와 서비스에 관심이 많을 것이다. 앞으로 이들은 기상정보의 주요 고객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 이제 기상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 기상정보서비스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일 때라 본다.

마지막으로 안동기상대장 부임 인사차 방문한 언론기관, 남부지방산림청, 경찰서, 소방서, 안동시, 고용노동지청 등 여러 유관 기관장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있다.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그 일이 업무 범위에서 좀 벗어나더라도 그 방향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라는 것이다. 안동시 노인대학 학생들에 대한 기상서비스를 통해 이것을 몸소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가슴속 깊이 전해지는 힐링타임

— 제2회 <도전! 기상가족 골든벨>을 마치며 —



노성운 / 항공기상청 예보과



Healing Time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다

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됐던 SBS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K팝스타>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버나드 박’이라는 새로운 스타가 탄생되었다. 미국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며 고생하는 부모님께 도움을 드리고 싶었던 착한 교포 청년의 소박한 꿈이 우승으로 이어져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었다. 또한 샘 김, 악동뮤지션 등 10대 천재 뮤지션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된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이다.

항공기상청이 위치하고 있는 영종도는 매년 이용객이 4천만 명이 넘는 세계 최고의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이 있어, 그 어떤 곳보다도 기상정보가 중요한 곳이다. 그러나 정작 영종도에 살고 있는 수만의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이나 체험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항공기상청에서는 지난해부터 <K팝스타>와 같이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기 위한 <도전! 기상가족 골든벨> 대회를 개최하여 국민과의 소통에 앞장서게 되었다.



국민행복을 위한 소통에 앞장서다

지난 3월 22일(토), 영종도 삼목초등학교 강당에는 마치 KBS <도전 골든벨>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 다양한 골든벨 모자와 번호판, 화이트보드, 각종 경품들로 가득 꾸며졌다. 대회는 어린이와 가족이 한 팀을 이뤄 함께 퀴즈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아름다운 기상사진 감상, 비행기 날리기 경연, 기상캐스터 체험 등 색다른 콘텐츠도 준비되어 대회의 흥을 돋웠다. 특히 고윤화 청장을 비롯하여 공군 기상단장, 각 방송사 기상캐스터들의 축하영상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유관기관의 협찬이 더해져 더욱 풍성한 대회가 되었고, 참가한 300여 명의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신나게 웃고 즐기며 축제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모두의 힐링타임이 되다

처음 골든벨 대회를 기획할 때만 해도, 그저 단순히 하나의 가족행사로만 생각했지, 그 이상의 성과를 기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많은 가족들이 대회가 끝나고 보내 준 소감문에서는 함께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행복을 얻었다고 한다.

“등에 대한 관심보다 날씨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는 게 더 재밌었어요.”
 “아빠와 함께 공부를 하는 동안 행복했고, 기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이번 대회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는데, 우리 가족이 정말 자랑스럽더라고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한 부분이 바로 엄마, 아빠와 함께 준비하면서 가족 간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였다. 특히 부모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가는 진지한 모습들, 아빠 귀에 대고 속삭이는 어린이, 문제를 맞히고 해맑게 웃는 모습, 관람객 퀴즈를 맞히겠다고 고사리 같은 손을 힘차게 들고 외치던 모습들은 대회를 준비한 우리들에게 더 큰 감동과 행복을 가져다주었다. 영종도의 어린이들과 가족들에게 부족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힐링의 시간을 나누겠다던 우리가 오히려 그 맑은 미소를 보며 가슴속 깊이 더 많은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 바로 모두의 ‘힐링타임’이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골든벨 대회를 위해 도움을 준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전해 준 영종도의 어린이들과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앞으로도 국민과의 소통 창구를 더욱 확산시켜 기상청이 꾸준한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아따, 꽃보다 광주랑께요~

벚꽃이 피기 시작하던 어느 날, 드디어 발령 전화를 받았다. 나의 첫 발령지는 정읍기상대인데, 올해부터는 기상대로 가기 전에 광주지방기상청에서 신규자 교육을 먼저 받게 되었다. 4월 1일 첫 출근.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잠도 한숨 못자고 도착한 광주의 첫인상은 무척이나 친절한 분들이 많다는 것이었다. 처음 들어서자마자 어찌할 바 모르는 내게 따뜻하게 말을 걸어 주고, 바리바리 챙겨간 짐들도 함께 옮겨 주셨다.



성지인 / 정읍기상대

교육은 총 5일 동안 진행되었는데, 기획운영팀에서 하루, 예보과와 기후과에서 각각 이틀씩 보내게 되었다. 교육이 시작되기 전 임명장을 받는데, 선서를 하는 시간이 있었다. 직원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선서를 하는데, 설레기도 하고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 같기도 했다.

제일 먼저 들어간 **기획운영팀**은 마치 전쟁터처럼 바쁘고 시끌시끌한 곳이었다. 광주지방기상청 소속 기상대들의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설 새 없이 전화가 왔다. 여러 업무와 관련한 많은 문서 작성으로 인해 직원들이 굉장히 바빴다. 행정 업무다 보니 관련법과 규정에 근거하여야 하는데 모두들 정확하게 숙지하며 일하고 있었다. 또 여러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 굉장히 파이팅 넘치게(?) 일하는 모습도 자주 보였는데, 그만큼 설 때도 활기차고 유머감각 또한 넘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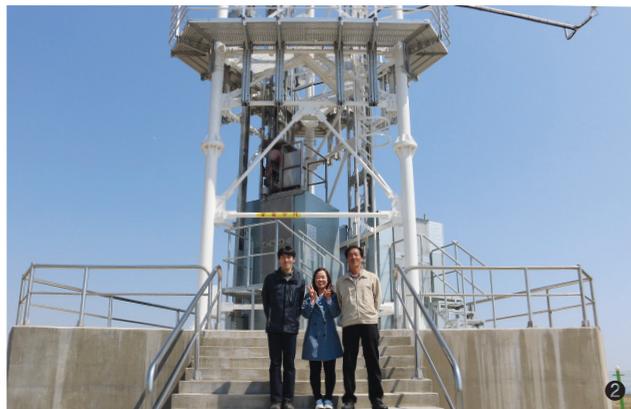
하루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건, 고향인 부산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곳에서 전라도 남자를 만나 정착하라는 이야기였다. 전라도 남자들이 요리를 잘하고 자상하다고. 아무튼 기획운영팀에서는 공적인 문서 작성법이나 숙지하고 있어야 할 여러 규정들에 대해서 배우고, 활기찬 분위기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다음날은 **예보과**로 향했다. 사람 수보다 몇 배로 많은 컴퓨터들과 모니터들이 늘어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모두 예보와 관측에 필요한 자료들을 항상 볼 수 있도록 표출해 놓은 것이었다. 이렇게 나온 내용들이 예보를 위한 자료가 되고 있었다.

예보과는 조를 이뤄 일근과 야근을 함께하는데, 밤이고 낮이고 같은 근무를 하다 보니 서로 가족 같은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취미생활을 공유하고, 서로의 건강을 항상 걱정하며 챙겨주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다. 잠깐 산책을 나갈 때, 빨간 동백들 사이에서 하얀 동백과 반반동백을 구경할 수 있었다. 또 벌을 직접 잡아 봉침을 놓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시시각각 예보를 하는 틈틈이 이러한 소소한 행복을 찾아서 공유하는 것이 즐거움을 배로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조가 바뀐 직원을 위해, 깜짝 파티를 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훈훈한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예보과 깜짝 파티



- ① 전남 고흡만
- ② 보성 종합기상관측탑
- ③ 보성 차밭
- ④ 식목일 행사 후 식사
- ⑤ 반반동백

다음은 가장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기후과**로 갔다. 기후과는 장기예보, 기후 관련 교육, 홍보뿐 아니라 관측장비 관리, 민원 업무 등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고 있었다. 설명을 들은 후, 식목일 행사가 있어서 장갑을 끼고 밖으로 나갔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작은 녹지 공원의 가운데에 있어서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언제부터 쌓였는지 모르는 흙이나 나뭇잎 등이 배수로로 꽉 막고 있었다. 우선 나무를 심기 전에 그것부터 치우기로 했다. 한 사람이 갈퀴를 들고 배수구 위의 가지나 잎들을 긁어내면 다음 사람은 삽으로 흙을 파내는 작업인데, 모두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협동작전을 펼쳤다. 그 덕에 배수로가 아주 깔끔해졌다.

그리고는 점심시간이 되어 직원들과 바깥의 벤치에서 배달음식을 먹었는데, 일하고 먹으니 맛이 없을 수가 없었다. 식사하면서 사투리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는데, 감도 잡을 수 없는 말들이 참 많았다. 광주에 있는 동안 부산과는 다른 억양과 사투리로 인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네?”였다고 하니, 다들 금방 익숙해질 거라며 한바탕 웃었다. 그래선지 어느덧 광주의 억양이 익숙해지고 그 구수함에 빠져드는 듯했다.

마지막 날은 **보성글로벌 표준기상관측소**로 견학을 갔다. 고도별로 기상요소들을 관측하는 탑이었는데 무려 300m가 넘는 높이였다. 탑의 가운데에는 점검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특별히 태워준다며 꼭대기까지 가보라고 것이 아닌가! 하지만 너무도 황송해서(?) 60m까지만 올라가기로 했다. 불과 전체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올라가서 내려다보니 “아이고!”가 절로 나왔다. 관리를 위해 매일 오르내리는 직원들을 보니, 절로 엄지손가락이 치켜 올려졌다. 돌아오는 길에 근처 보성 차밭도 구경하고, 고흡만 바다도 구경하였다. 잠시였지만, 전라도의 아름다운 경치에 금세 매료되었다.

광주지방기상청에서의 5일, 기상청에서 하는 전반적인 업무들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해볼 수 있어서 참 뜻 깊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어 행복했다.

미국 허리케인 연구의 중심으로 떠나다



전상희 / 국가태풍센터

미국 영화 <어벤져스2>가 마포대교에서 촬영을 시작하던 3월 30일, 우리 일행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학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다. 이 행사는 ‘허리케인과 열대 기상’이라는 주제로 미국기상학회(American Meteorological Society, AMS) 주관 아래 2년마다 열리는데 올해로 31번째를 맞았다. 태풍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의미가 컸기에 출발부터 기대감과 설렘으로 가득 찼다.

미국 서부 시간으로 3월 31일 오전 7시. 간단히 식사를 마친 뒤 학술행사 장소로 향했다. 행사 장소인 타운 앤드 컨트리 리조트(Town and Country Resort)의 활짝 핀 장미와 높은 야자수, 그리고 맑은 하늘이 매우 멋졌는데 기온이 너무나 쌀쌀했다. 한 차례 세션이 끝나고 휴식시간이 되자,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모여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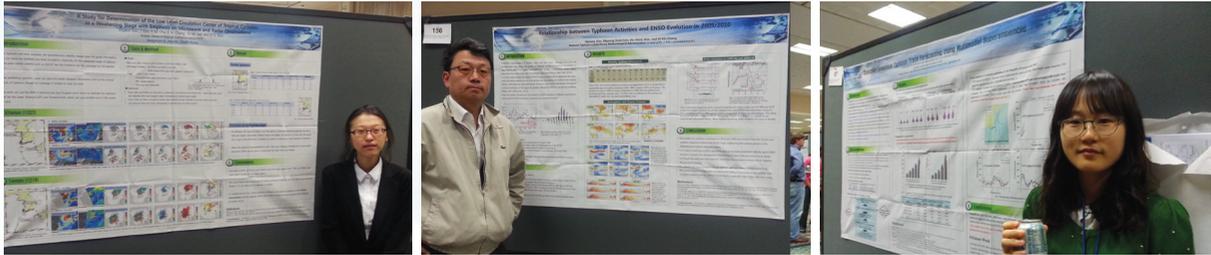
두 번째 날 아침, 화요일과 수요일에 걸쳐서 5개의 세션이나 준비되어 있는 ‘열대성저기압의 강도 변화’ 발표장으로 향했다. 이미 미국에서는 진로 예측 기술 개발을 넘어서 강도 예측 기술의 개발과 수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강도 변화 주제 중에서도 단연 주목받았던 것은 ‘급격한 강도 변화(Rapid Intensification, RI)’였다. RI는 미국허리케인센터(National

Hurricane Center, NHC) 전 센터장인 빌 리드(Bill Read)도 강조했던 시급한 도전과제로, RI의 체제와 예측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가 활발하였다.

간간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볼 때는 무척이나 반가웠다. 그도 그럴 것이 열 명 내외로 우리나라 사람은 소수였다. 반면에 중국인들은 학회의 동양인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열대 기상과 태풍 연구에서 상당한 입지를 나타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포스터 발표장에서 한 손에는 ‘국제 열대성저기압 워크숍(International Workshop Tropical Cyclone, IWTC)’ 홍보 책자를 들고 발표를 준비했다. IWTC는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가 주관하여 4년마다 열리는 세계 최고 권위의 열대성저기압 분야 워크숍이다. 올해로 8번째를 맞는 IWTC는 기상청 국가태풍센터가 주최하여 12월 1일~10일 동안 제주도에서 열린다.



올드 타운 전경



포스터 발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미국 해군 대학의 러셀 엘지 버리(Russel Elsberry) 교수가 포스터 발표장에 찾아왔을 때였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이 묻어났지만,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눈은 연구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반성하게 했다.

화요일에는 2012년 미국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준 허리케인 샌디(Sandy)에 대한 세션이 밤 9시 30분에 끝났고, 매일 아침 발표는 8시에 시작될 정도로 빡빡한 일정이었다. 금요일은 ‘허리케인 예측 개선 계획(Hurricane Forecast Improvement Program, HFIP)’ 세션이 주를 이루었다. 미국해양대기관리처(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를 기반으로 허리케인의 진로, 강도, 폭풍해일 등과 관련된 가이던스 향상 연구를 위해 조직된 프로그램으로 5년 안에 진로 및 강도 20%(10년 내 50%)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저녁식사 메뉴는 샌디 에이고 올드 타운의 멕시코 음식이었다. 이 올드 타운은 유럽인들이 처음 정착한 곳으로 1850년 캘리포니아의 생활양식을 간직하고 있다. 그동안 봐왔던 샌디에이고 어느 장소보다 가장 이국적인 풍경을 볼 수 있었다.

떠날 때가 되자 아쉬움이 커졌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열대저기압에 대한 현안적인 최신의 연구 결과를 경험할 수 있었기에 이 장소가 의미 있게 다가왔다. 또한, 미국의 발달된 허리케인 예보기술, 넓고 탄탄한 연구 커뮤니티,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투자가 부러웠다. 앞으로 국내 태풍 연구의 저변 확대와 투자를 통해, 2년 후에 개최될 허리케인 학회에서는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입지가 커지길 기대해 본다.

미국기상학회의 ‘허리케인 발표’ 주요 연구 결과

분야	주요 내용
위성 분야	-태풍 발생 탐지: 위성, 모델 분석 자료의 통계적 인자를 활용한 통계 탐지 및 예측, 모델(RUC) 이용 등 -태풍 위치·강도 분석: 태풍 위치 자동분석 알고리즘(ARCHER), 위성 분석 결과의 양상을 평균 방법(SATCON)
수치 예측 분야	-급격한 강도 변화(RI) 예측 성능 -모델 강도 예측 양상을 평균 방법
항공기·레이더 분야	-무인성층권항공기(Sky Hawk): 원통형 스캐닝 도플러 레이더를 이용한 바람장 관측 -드롭존데(10여 개 장착 가능) 투하
태풍 재분석 분야	-베스트트랙 일치화에 대한 연구 -과거 일기도 필름, 공군 관측 자료 등을 활용한 과거 100년 재분석 및 베스트트랙 생산
기타	-태풍 하이엔 피해 상황 보고 -태풍 피해 예상 모델 -진로 및 강도의 5(10)년 이내로 20(50)% 개선 목표



올드 타운에서의 저녁식사



잊을 수 없는 영국에서의 2년



주상원 / 수치자료응용과장

누구나 살아가면서 꼭 경험해 보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나 또한 외국에서 생활해 보고 싶은 갈망이 있었다. 물론 단기 출장으로 외국 경험을 하긴 했지만, 좀 더 장기간의 외국 생활을 해보고 싶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동일한 언어와 습성을 가진 이들과 수십 년을 살다 보니, 다른 곳은 어떠할지 궁금했다. 다행히 국비장기훈련 시험 기회가 왔고, 더욱 다행히도 영국 파견 합격자로 선정되어 2년 동안 영국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출장 기간 동안, 업무를 제외한 시간엔 영어 완전 정복과 유럽 여행을 가장 해보고 싶었다. 출장을 준비하면서 이번 기회가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영국에서의 2년을 마치면, 편안하게 소파에 누워 맥주나 한잔하면서 자막 없이 할리우드 영화를 보리라 다짐했다. 그러나 맥주를 마시다 보면 ‘인생 뭐 있어?’ 하면서 여전히 자막을 찾게 됐다. 결국 2년이 지나도 영어가 편해지진 않았고, 그나마 배운 게 있다면 잠깐 공부한다고 영어가 정복되진 않는다는 것이었다.

“ 힘들게 공부하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것보다는 평생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겠어? ”

아직도 생생한 영국 친구의 말이다. 누군가는 영어를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연애하는 것이라고 하던데, 내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으므로 좋아하는 미스터리 소설책을 구입해 읽는 방법을 선택했다. 좋아하는 책을 영서로 접하다 보니, 지금도 매일 영어를 사용하고는 있다. 이리다 보면 ‘언젠가는 늘겠지!’라고 여기면서.

영국에서의 2년 동안 물 만난 듯 부지런히 여행을 다녔다. 새로운 걸 많이 보고 싶고, 얼마나 우리와 다른지도 느껴 보고 싶어 서였다. 다녀 본 여행지 중에서 가장 행복했고, 꼭 다시 가 보고



여행 중에 발견한 뒤편 사진



방송인 배철수



개그맨 박명수



소설가 이외수

싫은 곳은 스페인의 세비야다. ‘세비야의 이발사’로 많이 알려져 있고, 플라멩코의 도시로도 유명한 곳이다. 세비야가 좋았던 이유는 복합적이긴 하지만, 따뜻한 햇살이 무척이나 사랑스러웠기 때문이었다.

여행지는 풍경, 유산, 음식 등 모두 중요하지만 따뜻한 햇살이 감싸줄 때 그 모든 게 빛을 발하는 거 같다. 요즘도 휴일이면 집근처에서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걷다가, 카페에 들러 커피나 맥주 한 잔을 마시며 행복을 발견하곤 한다. 먼 곳을 돌고 와서 집안에 파랑새가 있다는 걸 새삼 발견한 듯 우리나라가 참 좋아졌다.

세비야가 내게 특별한 이유는 하나가 더 있다. 스페인이 플라멩코가 유명하다고 해서, 알람브라 궁전으로 유명한 그라나다에서 플라멩코 쇼를 봤다. 나름 유명한 곳이라고 추천받아 갔는데,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다.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무시하고 가려는데, 그래도 뭐가 아쉬웠다. 마침 세비야에도 플라멩코 전용극장이 있다고 해서 속은 셈치고 한 번 더 보기로 했다.

빨갛게 펄럭이는 치맛단과 바닥을 울리는 발굽 소리, 깊고 경쾌하게 울리는 기타 소리와 캐스터네츠의 파도에 1시간 반 동안 잠시 정신을 잃다가 세상으로 돌아왔다. “아, 이래서 플라멩코에 환호하는구나!”라고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그라나다에서 본 플

라멩코만 기억하고 돌아왔다면, 아마도 평생 플라멩코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갖고 살았으리라. 정말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구가 떠올랐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건 영국에서의 느낌에 관한 경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운전 중에 상향등을 켜는 것은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빛을 이용해 욕을 하거나, 혹은 비키라는 양보 강요의 행위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영국에서는 상대방에게 양보한다는 의미였다. 우리나라도 운전 중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신호가 있나 생각해 봤는데 딱히 떠오르지 않았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바빠서 상대방에게 양보할 여유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들었다.

유사한 예로 라디오나 TV가 시간을 알릴 때 영국은 “띠, 띠, 띠, 띠, 띠, 띠, 6 O'clock-”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TV는 “띠, 띠, 띠, 6시입니다.”라고 한다. 라디오는 더 급하게 “6시를 알려드립니다. 띠-” 하고 끝난다. 체코 작가인 밀란 쿤데라의 소설 「느림」에서 현대인이 빠른 변화와 속도에 끌리는 건 기억보다는 망각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요즘은 느리더라도 기억하면서 사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짧은 기간에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 그냥 흘러갈 수도 있었던 시간에 새로운 경험을 했으니 그것만으로도 영국에서의 2년은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

11번째 부케의 전설



“너, 5월에 시간 좀 있니?”

“왜, 무슨 일 있어?”

“시간 있으면 나랑 결혼이나 할래?”

연극 <5월엔 결혼할거야>에서, 외로운 건 참아도 친구가 먼저 결혼하는 건 참기 힘든 여주인공이 아는 남자라도 붙들고 프리 포즈를 하는 장면이다. 이 연극은 5월의 신부가 되기 위한 29세 동갑내기 여자들의 고군분투 결혼 대작전을 담았다.

연극에 등장하는 그녀들처럼, 봄바람 살랑살랑 부는 5월이 오면 특히 더 결혼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이해가 간다. 여자라면 누구나 따뜻한 봄 햇살을 맞으며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싶지 않을까? 그래서지 ‘결혼의 계절’인 지금, 여지없이 매주 청첩장이 날아오고 있다.

한번은 결혼을 앞둔 친구를 축하하는 모임에 갔다. 예비신부인 친구가 이번에 ‘도’ 내게 부케를 받아달라고 했다. 그랬다. 그녀의 첫 번째 결혼식 때도 내가 부케를 받았었다. 그 이후로 난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여태껏 솔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녀는 그새 두 번째 결혼을 앞둔 것이다. 이제 친구들 중에서 미혼은 나뿐이라서 어쩔 수 없이 받아야만 한다.

친구들이 이번이 몇 번째 부케냐고 해맑게도 물었다. 마일리지 쌓듯 차곡차곡 받아온 게 벌써 11번째라고 말했다. 처음 부케를 받을 때, 6개월 안에 시집 못 가면 3년간 못 간다는 속설 때문에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걸 보다 못해, 괜히 나섰다가 줄줄이 받게 됐다는 말도 덧붙이면서.

‘부케전담자’가 돼 주구장창 부케만 받았지만, 정작 남자한테 꽃 한 송이도 못 받아봤다고 하니 친구들의 눈가가 점점 축축해졌다. 그러더니 내가 결혼할 땐 냉장고, 홈시어터, 에어컨 등 부르는 대로 다 마련해주겠다며 성화가 시작됐다. 친구들의 공약은 점점 커져 가는데, 이상하게도 애가 타는 건 나였다.



전설적인 부케종결자가 되어 이전 웬만한 공격에도 덤덤해지고, 싱글 생활에도 나를 만족하며 살고 있었는데, 이런 날 큰 충격의 도가니에 빠지게 한 사건이 결국 터지고야 말았다. 바로 얼마 전, 할머니의 칠순잔치로 오랜만에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인 날이었다. 여지없이 어르신들의 결혼 성화가 이어졌는데, 사랑하는 조카가 온다는 소식에 곳곳이 벋겨내고 있었다.

터울이 큰 언니의 딸인 조카는 나랑 띠동갑인데, 첫 조카여서 그런가. 어릴 때 기저귀도 갈아주고 젖병도 물리고 하던 그 업어 키운 정 때문인지 친구처럼 편한 사이였다. 항상 엄마보다 내가 더 좋다며 안기던 그 아이가 벌써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조카는 도착하자마자 생글생글 웃으며 내게 다가와, 제일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다며 속삭였다.

“이모, 나 취직했어.”

“어머, 취직했다고? 축하해!”

“아니, 나 시집간다고.”

Wedding

어라? 자식같이 키운 우쭈쭈 이 아이가, 앞에서 께아껴아 웃는 이 철부지 아이가 결혼이라니! 썩기를 박는 조카의 말은 계속됐다.

“갑자기 웬 결혼이야?”

“나 아이가졌거든. 이모 이제 할머니 되겠네~ 부케는 이모 줄까? 부케 되게 좋아하잖아!”

좋아하잖아? 행복에 겨워 정신줄 놓은 이 아이에게...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시집도 못간 날 할머니로 만든 이 조카, 이 불효막심한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러시아 속담에,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두 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세 번 기도하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가정을 이루는 일이 어렵다는 것인데, 나의 기도는 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향한 건지, 다들 어쩔 이렇게도 잘만 결혼하는 것일까.

이 화창한 봄날, 어서 좋은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수줍게 물어야지.

“혹시 5월에 시간 있어요?”



제주 지역 기상청 공무원 직장협의회 출범

작년 9월 23일, 직원들의 권익보호와 조직 활성화를 위해 기상청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공식 출범하였다. 이후 국가기상위성센터(11월 1일), 부산지방기상청(12월 3일), 강원지방기상청(12월 4일), 광주지방기상청(12월 27일)에서도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2014년 봄, 한반도 최남단 제주에도 드디어 직장협의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주지방기상청 공무원 직장협의회(회장 고수완)는 지난 2월 27일 공식 출범하여 총 31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었다. 공직문화를 보다 생산적이고 창의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직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소통 활동을 통해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 근무환경과 조직문화 개선, 직원 고충사항 해결 등 기상청 발전을 위해 항상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

국립기상연구소 공무원 직장협의회(회장 이희춘)는 지난 4월 9일에 설립됐으며, 총 24명의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국립기상연구소의 제주 이전으로 인해 새롭게 변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의견 수렴 및 제안 활성화를 통해 연구소 전 직원이 웃을 수 있도록 직원간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제주지방기상청 공무원 직장협의회



국립기상연구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내리 마미

36. 날씨 제보 애플리케이션



하하, 녀석...^^



갑자기 소나기를 만나 당황한 나.. 비에 젖은 나도 제법 잘생겼...

날씨 제보야.. 셀카 제보야?

출입기자 간담회(4.9)

고윤화 청장은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2023년까지 강수량 예보 정확도 오차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강수량 정량 예보를 개선함으로써 여름철 집중호우와 이상기상에 따른 방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기상청은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 있는 기상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변모하는 기상청의 살아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전합니다. | 편집진



제69회 식목일 행사(4.4)

식목일을 맞아, 직원들이 본청 안에 산철쭉과 진달래 등 나무 500여 그루를 심었다. 또한 전국 각지의 지방기상청과 기상대 등에서도 '푸른 지구 만들기'에 적극 협조하였다.



제1회 기상기후 빅데이터 포럼(4.10)

고윤화 청장은 관련 부처, 기관, 학계 간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상청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의 활용이 활성화되어, 그 가치가 민간으로 더 확대돼야 한다고 전했다.



'ICT를 이용한 기상예보' 초청연수(4.10~5.1)

필리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아시아 3개국의 기상청 직원 15명을 초청하여 'ICT(정보통신기술)를 이용한 기상예보' 과정을 운영하였다.



한국행정학회와 업무 협약 체결(4.14)

기상청과 한국행정학회가 '기상 행정 및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은 전문적인 행정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 밀착형 기상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2014년 신규자 입교식(4.14~6.27)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기상직 9급에 합격한 신규자 47명이 조직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두 달여의 교육 과정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무교육, 정책수행 역량 평가, 공동체훈련, 현장학습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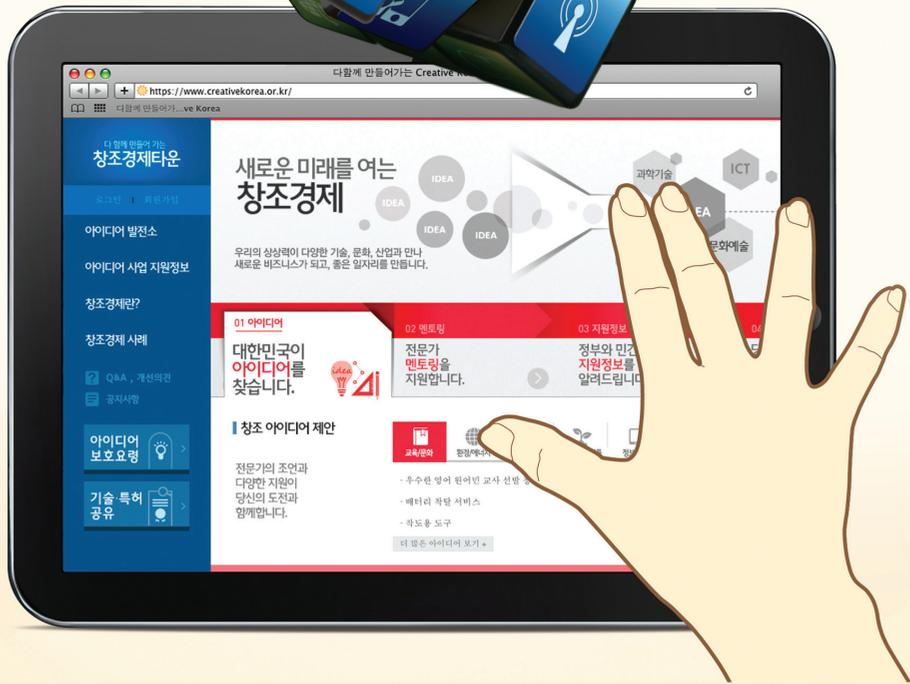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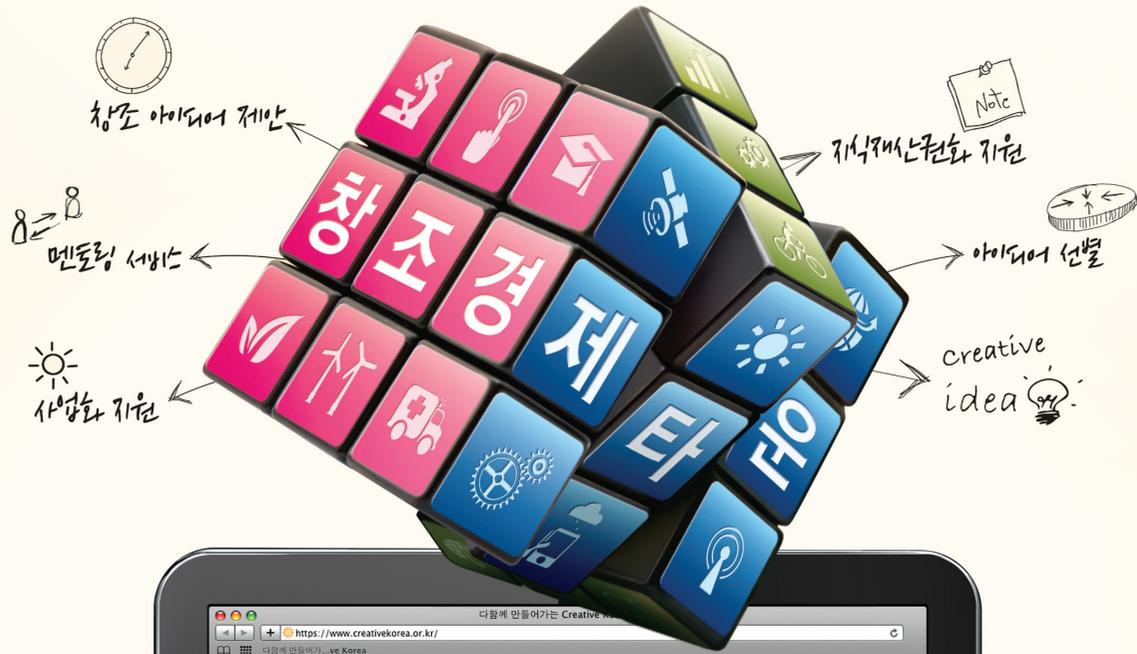
진도 해상사고 관련 상황반 투입(4.17~)

기상관측선 '기상1호'가 빠른 구조 작업을 위해,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 현장 부근에서 기상 관측을 진행하여 자세한 해상 기상상황을 전달하였다.

여러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조경제타운에 제안하세요!

국민의 아이디어에 실현가능성을 **맞추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새로운 비즈니스가 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실현시켜주는 창조경제타운!
한 사람의 작은 아이디어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키웁니다



지금 바로 **창조경제타운**을 검색해 보세요! ▾

검색

창조경제타운이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지만 기술이 없거나, 전문가를 만나기 어려운 분들에게 멘토링을 연결시켜주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별하여 창업을 지원하는 아이디어 구현 플랫폼입니다.

우체국 간 송금 수수료 면제도
공공주택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대도
모두 여러분의 제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생활 속 아이디어가 정책이 되는 곳 제안하세요! 국민행복제안센터

